

2019년 9월 시청자위원회

2019년 9월 24일 (화) 오후 4:00

대전MBC 대회의실

참석 :

김선재 위원장 / 김종남 위원 / 박상민 위원 / 서한나 위원 / 양선희 위원 / 양흥모
위원 / 이규홍 위원

대전MBC :

대표이사 신원식 / 보도국장 신영환 / 방송기술 센터장 정수진 / 경영심의부장 임세
혁 / 제작부장 최영규

대표이사 :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된 것을 느낍니다. 날씨만큼이나 현재 방송환경이 급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OTT의 지각변동이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지역방송사들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상과
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대전MBC가 창사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유래
없는 방송환경의 급변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저희는 언제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주가 창사주간입니다. 한빛대상 시상식과 창사기념식이
진행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완전한 가을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처럼 방송환경 변화가 너무 급격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방송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지역방송도 이제
생존이 문제인 시기입니다. 창사 55주년이면 장년기에 들어선 인생의 안온한 시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생존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려
움을 극복하고 중심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
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대전MBC 55년의 역사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간입니다. 우리 시청자위
원들도 공영방송으로서의 대전MBC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시청자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민 위원 :

저는 노정렬의 시시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방송된 '외국인 거주 비율 1위 충남' 편에서는 4명의 패널이 등장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외국인 17명이 근무 중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세와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출연한 4명의 패널의 이야기가 조금은 한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나오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네팔 노동자가 나왔는데, 한국어가 너무 어색해, 생생한 느낌이 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한국어가 아주 능숙한 노동자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출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막 부분에서 부서 직함이나 이름이 보다 더 길게 노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수치들을 그냥 말로 전달하기보다, 도표화하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장의 의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 출국 후 지급문제는 불법체류를 막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인데, 개선하고자 주장하여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3회까지는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사실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합니다.

양선희 위원 : 먼저 보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가 있었는데요, 젊은 진행자로의 교체는 최근 방송가의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보도에 있어서는 신뢰감, 안정성 등이 중요한데, 입사 2년차 나온서로 교체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개편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동안 교통관련 뉴스에서 교통방송과의 콜라보는 좋았고, 현장을 연결해서 방송하는 것은 좋았는데, 질의-응답 식이 아니라, 연결 후 크로스토크 없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크로스토크가 안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석관련 각당의 모습 스케치에서 자유한국당 부분에서 삭발 시위장면이 나왔는데,

별도 아이템으로 다시 또 나와서 중복되는 느낌입니다. 한쪽 뉴스에서만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뉴스 아이템 중 충남 여신들, 전국체전 앞두고 주목이라는 온양 농구팀 소개하는 부분에서 '여신'이라는 표현을 중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대전 충남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점검은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작부문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내가 그린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려를 언급했으나, 노잼도시, 전통시장 소개 등, 정리된 모습이 보여 반갑게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중 어설픈 나레이션보다, 자막과 음악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일부 회차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출연자의 사용 언어 중 '개쩜다' 와 같은 언어는 보다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8일 방송된 노정렬의 시시각각, 여야 4당에게 듣는다는 대한 의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좋았으나, 얼마나 참여했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시청자들이 참여했는지 참여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새롭게 시작한 '오롯이 당신'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개인을 주목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사람을 위한 콘서트라는 기획이 최근 방송계의 힐링에 집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출연자의 이름에서 한충원, 한충헌 등 자막이 오기까 눈에 거슬렸습니다.

양흥모 위원 :

저는 주변의 지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전MBC에 대한 주변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여성 아나운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문제, 인권위원회 제소 후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 주변 네트워크에서 많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사내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도부문에서 화성 연쇄살인 관련 우리지역의 미제 사건 보도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

라서 좋은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아침뉴스에는 일기예보가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으로 줄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대전시의 개발 이슈에 대한 문제는 계속 중복되어온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형식적 중립주의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복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문산 개발과 같은 반복되는 사안은 배경과 쟁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도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입장만을 다룬 뉴스보다, 중복 사안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필요합니다.

서한나 위원 :

건강플러스에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 축농증에 좋은 음식 등을 소개하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 다루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식재료나 음식 만드는 코너에서 채식 관련 부분을 좀 더 소개했으면 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공주 예하지 마을을 소개한 코너는 리포터의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이슈가 된 여성아나운서 차별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김종남 위원 :

최근 여성아나운서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에 대한 답글이 없어, 더욱 궁금증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내가 그리는 세상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보았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예전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 민영화 등의 지역에 대한 이슈들은 좀 더 집중보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 양흥모 위원님의 아침뉴스의 날씨에 대한 부분은 저는 날씨가 두 번이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 충남 여중생에게 여신이라는 표현은 양선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김선재 위원장 :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롯이 당신, 택배기사편을 보았는데, 사연속의 주인공들이 감동을 주는 따뜻한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서민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50분 동안 알차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걸맞게 유튜브 조회수도 높게 기록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전만의 특색 있는 콘서트로 발전 했으면 합니다.

주말에 방송되는 전국이 보인다는 주말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시간대가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합니다. 대전 근교의 행사 소개를 중심으로 주말 오후에 방송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로써,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회사측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영국장 이재근 :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아나운서 차별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 드리면, 6월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2명이 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함

께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
2. 동일 노동에 남녀 차별

첫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신입사원 채용시, 전체 7명의 신입사원중 남성 4명 여성 3명이 선발되었고, 이중 아나운서는 남성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지역사에서 드문 여성이 신입사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여, 신입사원 선발에서의 남녀차별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아나운서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 외에 행정, 스포츠 캐스터, 라디오 방송 연출 등의 별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를 동일 노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외에, 법리적인 부분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에 따라 출연료로 지급되며, 개편에 따른 교체는 방송 실무 제작팀의 결정으로 회사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결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 채용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나요 ?

대표이사 :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차별 문제는 프레임의 문제이고도 합니다. 방송사는 상시 고용직으로 쓰지 못하는 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는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송인으로 방송 출연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술자리에서의 사담을 녹취하여, 공식화 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직군에 따른 차별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써야 하나 라는 문제는 다른 프리랜서 진행자, 작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로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문제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닌, 프리랜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이러한 문제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단위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가 모범 사례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도국장 신영환 :

프로그램을 자세히 모니터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데스크 진행자, 젊은 아나운서로 바뀐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력 구조상 현장 취재를 보강하기 위한 결정이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광역권 취재를 위한 취재력 강화를 위한 결정으로 안정감이 덜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LTE 연결시, 크로스 토키 불가 문제는 현재 저희가 소유한 장비로는, 릴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양선희 위원 :

기사의 말미에 기자의 모습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보도국장 신영환 :

현장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신 이라는 단어의 사용문제는 유튜브에서 통용되는 단어라서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다시 공중파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중 날씨에 대해서는 시정차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뒷부분에 상세히 설명하는 형식을 보다 강구하겠습니다.

제작부장 최영규 :

오롯이 당신이 8회 제작중 오늘 3회차 방송입니다.

다중을 위한 콘서트가 아닌 한사람을 위한 콘서트로 제작이 이어지고 있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미래다. 숲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숲 내일을 만나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문제를 모티브로 하는, 아리랑을 매개로 제작중이며, 남북 철도 연결문제를 다룬 철의 실�크로드를 제작중입니다.

호평을 받았던 독전, 시즌 2는 제작을 검토중이며,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에 대한 지적은 초기에 우려했던 상황으로 참여인력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 대학이 대상이지만,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프리랜서 아나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작진의 노력이 합쳐지면 우리 지역의 대표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